



당신의 '인생작'은 무엇입니까?

: 대학생의 예술 정서경험을 통해 본 인생작의 키워드와 형태

「한국미술사」와 「데이터분석기초」강의페어링

심리학과, 김영근, 202128100, 안지연 교수님 지도

연구 배경 및 목적

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심오한 생각을 표현한다. **감상자는** 예술가의 **작품을 경험**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**감정을 경험**하며 **자신이 누구인지** 통찰을 얻고, 다양한 관점과 세계관에 대한 더 나은 **이해**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(Sherman&Morrissey, 2017).

그러나 예술가의 **작품**들은 대다수의 경우 **창작자를 중심으로** 정의된다. ‘명작’, ‘걸작’, ‘기념비적 작품’, ‘masterpiece’ 등이 그 예이며, 위 정의들에서 감상자는 위대한 작품을 관람할 뿐인 수동적 존재로 간주된다. 이에 연구자는 **감상자 스스로** 생각하는 인생작의 종류,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술 감상자 중심 경험분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.

‘당신의 인생작은 무엇입니까?’ 본 연구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**대학생 176명**의 주관식 응답을 기반으로 ‘인생작’이라는 개념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. ‘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(김선경, 2021)’는 김선경 시인의 표현처럼, 이 대학생들이 인생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형태를 정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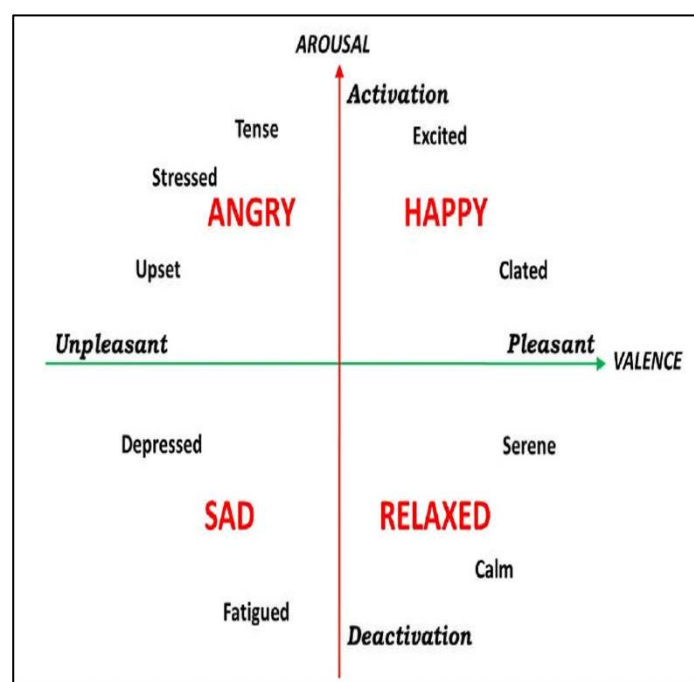
이론적 배경

‘인생작’이라는 개념은 감상자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, 학술적인 **명시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**.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유사/관련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연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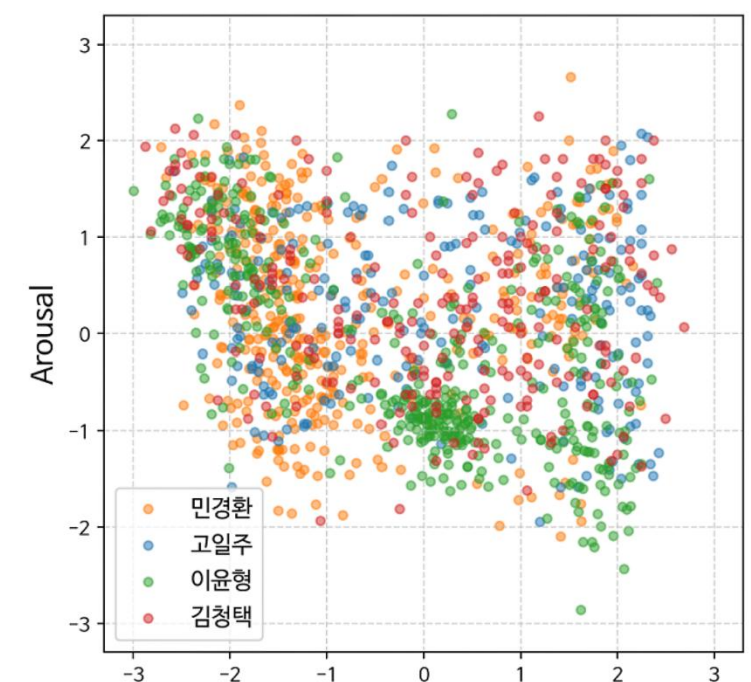
인지심리학에는 ‘개인의 정체성, 가치관, 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강화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(Singer, 2013)’인 ‘**자아정의적 순간(self-defining moment)**’ 개념이 존재한다. 이는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, 개인의 핵심 가치나 자기개념 등과 연결되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형태로 구성된다. **개인적 전환점**이 되거나 **큰 감정 반응**을 일으킨 ‘인생작’들은 이 관점에서 볼 때 자아정의적 순간에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.

미적 인지주의에서는 예술 경험과의 심리적 상호작용이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. 개인이 인생작을 선정할 때 이 관점에서는 **정서가** 중요한 한 부분으로, 특정 예술에 대한 **흥미**, 혹은 **경외감**(Wilt et al., 2024) 요소를 그 구체적 예시로 든다. 그러나 이 두 정서만이 실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.

이에 대한 실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먼저 논해야 한다. 본 연구에서는 **Russell의 정서 지도(Affect Grid)** 이론(Russell, 1980)을 그 근간으로 제시한다. 이 이론에서는 사전에 등재된 모든 감정 단어를 **유인가(Valence)/각성(Arousal)**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 평면 공간에 배치하였다. 각 단어 간의 의미 차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파악하며, 최근에는 **한국어**로도 **개발된 어휘집**(Lee et al., 2022)들을 볼 수 있다.



[Russell의 정서 지도]



[한국어 정서 어휘집- 정서 산점도]

이제 대학생들의 예술 경험 데이터를 통해, 인생작과 관련된 개념들의 설명이 옳은지를 점검해 볼 것이다. 해당 개념들이 실제 응답에서 키워드로 등장하는지, 정말 흥미나 경외라는 특정 정서로 인생작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.

연구 1: 인생작 키워드 분석

먼저 대학생들이 인생작에 대해 발화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-단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. 빈도분석을 원본 데이터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어절 단위로 데이터가 분석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 단어 그대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, **품사 단위로 데이터를 분해**하였다. 그리고 의미 분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**4개 품사(동사, 형용사, 일반명사, 관형사)**(Park, 2020)에서 불용어를 제거한 단어군을 **분석 대상**으로 설정하였다. 다음 그림들은 분석 결과를 **워드클라우드**로 시각화한 것이다.



[일반명사 워드클라우드]



[형용사 워드클라우드]



[관형사 워드클라우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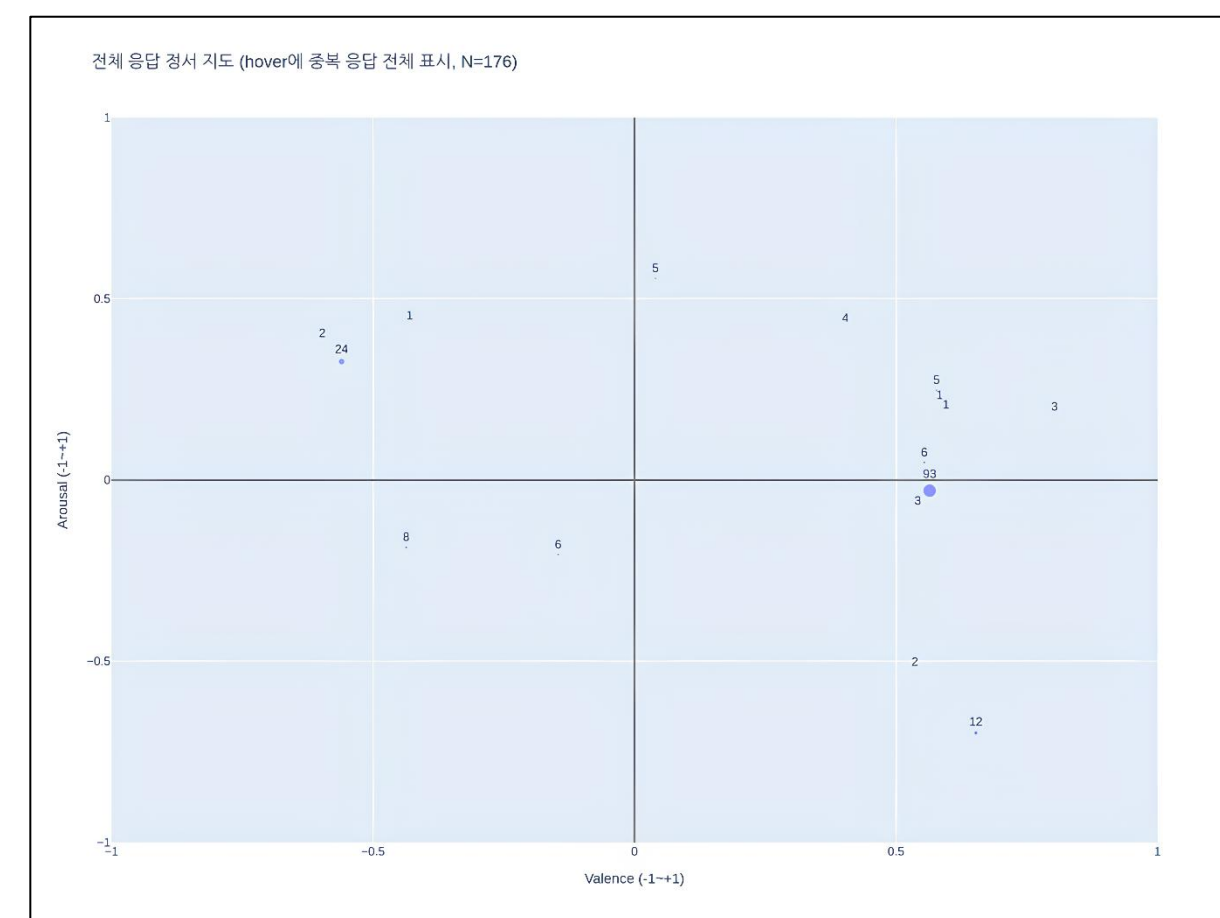
일반명사 분석에서는 ‘생각’, ‘사람’, ‘기억’, ‘당시’ 등의 단어로 작품이 **자아의 일부**라는 인식과 함께 ‘영화’, ‘그림’, ‘노래’ 등 각종 **작품의 장르**가 눈에 띈다. 형용사와 관형사에서는 ‘슬프다’, ‘아름답다’, ‘정서적’ 등 개인의 **정서적 지각**과 관련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생작 관련 키워드로 나타났다.

결과적으로 ‘자아’, ‘장르’, ‘정서’를 인생작과 관련하여 분석할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었다. 다만 이 중 ‘자아’의 경우 각 응답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고 판단, 본 연구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‘선정 계기’의 일률적 추출로 대체하여 알아보도록 한다. 그 외 ‘장르’는 응답을 범주화하여, ‘정서’는 응답에 특정한 정서를 부여하여 더 알아볼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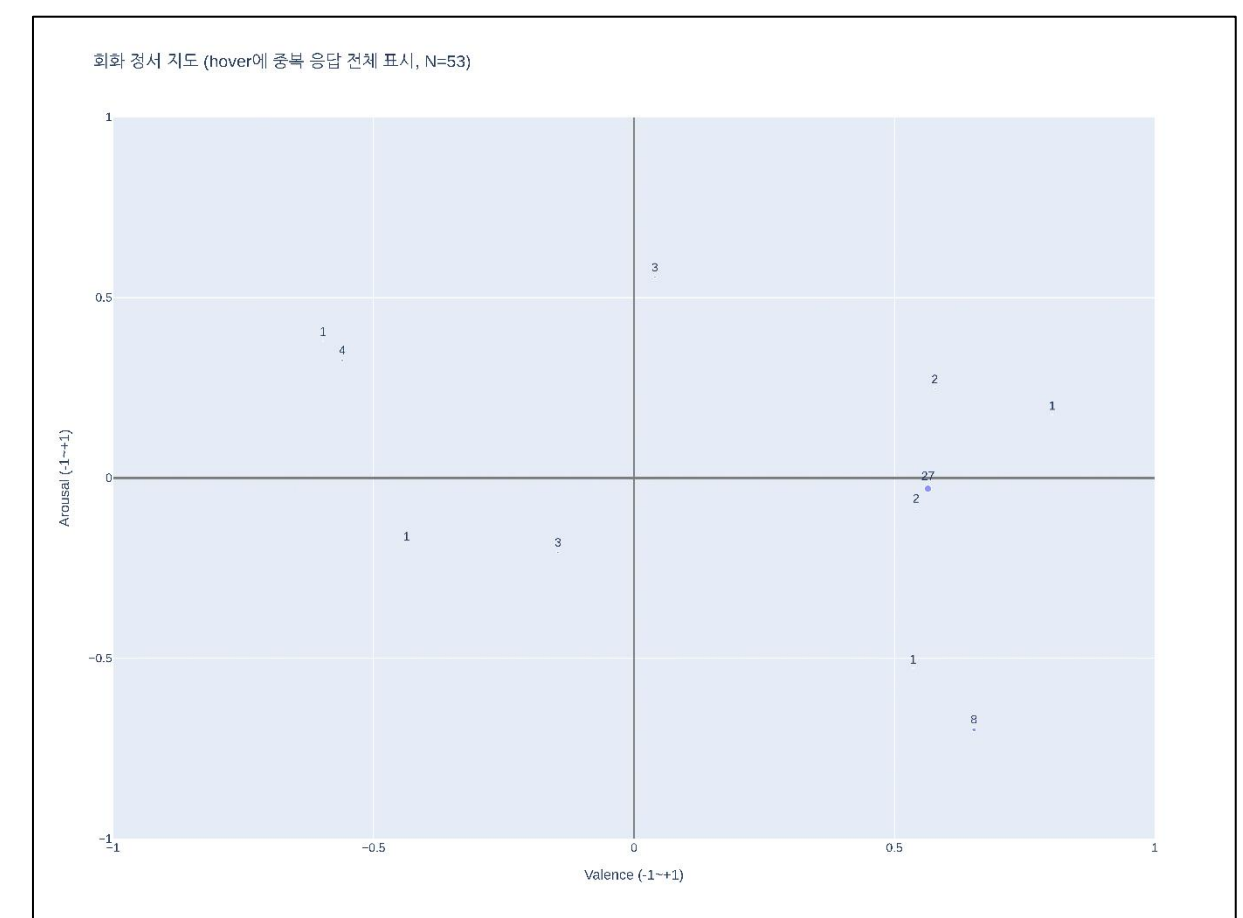
연구 2: 인생작 정서-장르 형태

연구 1에서 제시된 키워드 중, 본 연구에서는 연속선상 위에 경험을 수치화할 수 있게 하는 ‘**정서**’를 **중심으로 추가적인 탐색**을 이어나갔다.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던 ‘흥미’나 ‘경외’가 실제로 인생작을 충분히 설명하는 주요 정서로 해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. 추가로 응답들의 주요 정서를 파악한 뒤에는, 그 전체적인 추이가 개별 장르에도 유사하게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‘**장르**’ **키워드의 의의**를 검증하고자 했다.

각 응답 데이터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도구로는 **LLM(Large Language Models, 대규모 언어 모델)**과 **한국어 정서 어휘집**(Lee et al., 2022)을 선택하였다. 이 어휘집은 정서 차원을 Russell의 모형에 따라 유인가/각성 두 축으로 정의하며, 정서 단어를 포함한 **한국어 단어 1339개**를 **(-1, -1), (1, 1) 사이의 점수로 평정**한 것이다. 본 연구에서는 LLM을 활용하여 어휘집을 기준으로 각 응답에 정서가를 매기도록 자동화하였고, 전체 분포를 확인한 뒤 ‘매체별 주요 정서와 그 방향성/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.



[전체 응답자-정서 산점도]



[회화 장르-정서 산점도]

먼저 전체 응답자의 산점도를 확인해 보면, 놀라움 정도로 중복된 수준의 정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. **176개 응답 중 93개(52.8%)**의 응답을 차지한 ‘**감동**’, 24개(13.6%)를 차지한 ‘**위로**’, 12개(6.8%)를 차지한 ‘**평온**’ 등 대체로 **몇 개의 정서가 대다수의 인생 작품을 설명함**을 알 수 있다.

장르 구분과 함께 응답의 정서를 분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.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장르인 회화(53개)의 경우를 보면 감동(50.9%), 평온(15.1%), 위로(7.5%) 순으로 정서 양상이 나타났으며, 구체적인 순서만 다를 뿐 **전체적인 추이와 거의 유사함**을 알 수 있었다.

추가로 산점도에서 정서의 **방향성과 강도**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. 세로축인 각성도의 입장에서 -0.2~0.4점 사이에 152개(86.4%)의 응답이 위치한 점, 가로축인 유인가의 관점에서 0.6점을 초과하는 응답이 126개(71.6%)이 특징적이다. 이는 **대학생들이 인생작을 선정하는 순간에 대부분 큰 각성/이완상태에 있지 않으며, 정적 유인가(pleasant) 차원에 속한 것으로** 해석할 수 있다.

논의 및 제언

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‘인생작’ 개념에 대한 **중요 키워드(자아, 장르, 정서)**를 제시하고, 단순한 선호 작품을 넘어 자아정의적 기억과 정서 반응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심리 서사로 정의할 수 있음을 보이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.

키워드분석과 더불어, LLM-정서 어휘집 결합을 통한 **계량적 분석**으로 데이터의 **감정 강도와 방향성**을 파악할 수 있었다.

주요 인생작 선정 정서의 **중복 이유**를 충분히 **해석하지 못한 점**은 본 연구의 **한계**이지만, 일률적으로 추출한 인생작 ‘선정 이유’를 **추후 연구에서 질적으로 분석**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듯하다. 또한 분석 시간 등에 대한 우려로 분석하지 못한 데이터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, 이후 발전시켜 경험 데이터베이스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.

마지막으로 충분히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을 가정한다면, 예술의 각 장르에서 **감상자들**을 기준으로 한 작품의 **흥행 요소**를 **예술 창작자/기획자에게 전할 수 있는** **가교**로서의 자료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.

참고문헌

- 김선경 (역음). (2021). *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*. 북로그컴퍼니.
- Lee, J., Lim, J., Park, J., & Kim, C. (2022). Emotion Evaluator: Expanding the Affective Lexicon with Neural Network Model. In *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* (Vol. 44, No. 44).
- Park, J., & Tyers, F. M. (2020). An enhanced mapping scheme of the universal part-of-speech for Korean. In *Proceedings of the 12th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Conference (LREC 2020)* (pp. 3770–3776).
- Russell, J. A. (1980). A circumplex model of affect. *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*, 39(6), 1161–1178.
- Sherman, A., & Morrissey, C. (2017). What is art good for? the socio-epistemic value of art. *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*, 11, 411.
- Singer, J. A., Blagov, P., Berry, M., & Oost, K. M. (2013). Self-Defining Memories, Scripts, and the Life Story: Narrative Identity in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. *Journal of Personality*, 81(6), 569–582.
- Törnberg, P. (2023). How to use llms for text analysis. *arXiv preprint arXiv:2307.13106*.
- Wilt, J. A., Exline, J. J., Sherman, A., & Schlegel, R. J. (2024). Engagement with art and meaning in life: The predictive roles of awe, interest, and supernatural attributions. *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*, 1-15.